

'옛 전주부성 서문터' 다시 태어나다

시, 4개월여 걸쳐 보행자 쉼터 조성... 벤치·화단 등 생기있는 공간 변모

불법주차와 쓰레기 등으로 방치됐던 전주 원도심 내 옛 전주부성 서문터가 주민과 관광객이 잠시 앉아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됐다. 전주시는 완산경찰서와 인근주민들과 힘을 모아 웨딩의거리와 차이나거리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옛 다과출소 외부공간에 주민과 인근주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약 16.5㎡(5평) 규모의 보행자 쉼터를 조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곳은 과거 전주부성 서문터였다는 알립판이 설치돼 있지만 노상에 주차된 자동차로 가려져 쓰레기가 쌓이고 방치되고 있는 공간이었다.

이에, 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활동가들은 해당지역을 찾는 관광객

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반면 주변에 돈을 지불하지 않고 앉아서 쉼터 공간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보행자 쉼터로 재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9월부터 약 4개월의 작업 끝에 쉼터 조성을 완료했다.

특히, 길고양이들의 쉼터였던 공간의 옛 기억을 되살려 한전 분전함은 고양이와 강아지, 펭귄 등 동물그림으로 바뀌었으며, 외부공간에는 벤치가 설치되고 화단에 꽃이 식재돼 생기있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또한, 이번 쉼터 조성은 원도심 주민과 마을활동가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다양한 기관이 힘을 모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완산경찰서는 성공적인 전주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해 선풍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한국전력은 지중화 분전함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허락했다.

또, 지역 주민·상인들은 쉼터 조성에 적극적인 협력이 나섰으며, 노상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완상구경의 대형 플랜트 제공과 전주시 도시디자인팀의 경관개선 디자인 조언도 쉼터가 조성되는데 한몫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활동가들과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난 12일 향후 주민쉼터 공간을 아름답게 꾸며나가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쾌적한 약속' 협약도 선포했다.

이날 주민들이 선포한 내용은 함께 조성한 공간을 주인인식을 갖고 깨끗

하고 아름답게 유지·관리하는 것은 물론, 옛 전주부성 서문터 주변의 차량 주차차 금지와 원도심의 아름다운 공간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동참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 지난해부터 전주 원도심 지역에서 국비 91억 원 등 총사업비 182억원이 투입되는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전주형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와 접목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지역주민이 동반 성장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전북대병원 의료수준 입증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2년연속 1등급 획득

전북대학교병원은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실시한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관상동맥우회술은 가슴을 열어 막힌 심장동맥에 대체 혈관을 연결해주는 수술을 말한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평가 항목은 ▲수술건수 ▲수술시 내흉동맥을 사용하는 비율 ▲퇴원시 아스피린 처방률 ▲재수술

비율 ▲수술 후 사망률(30일 내)과 수술 후 입원일수 등이다.

평가결과 전북대병원은 높은 점수를 획득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등급을 받게 됐다.

강명재 병원장은 "관상동맥우회술은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수술로 적정성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병원의 의료질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역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고수준의 의료질과 진료환경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수험생 첫 미래설계 도와드려요"

도교육청, 26일부터 대입 정시 대면상담실 운영

전라북도교육청은 오는 26일 부터 내년 5월까지 대입 정시 지원 수험생 위한 '대면 진로상담실'을 가동한다.

대면 상담은 전북교육청 7층 대입 진학지도원실에서 총 28명의 상담교사들이 투입되어 별도의 예약없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전북교육청을 찾기 힘든 학생들을 위해 군산과 익산 교육지원청에서도 오는 28일 부터 이틀간 대면 진로상담실을 별도로 개설한다.

상담실을 이용하고 싶은 수험생은 수능 성적표를 지참한 후 방문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최재희 박사가 권위있는 국제 무용대회에서 '뾰족한 지렁이의 발톱'이란 작품을 연기하고 있다.

전북대 무용학과, 세계 최고무대 선다

국제무용대회서 해외 심사위원장 수상 '뉴욕 92Y 하크네스 댄스센터' 초청 받아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최재희 박사가 권위있는 국제 무용대회인 '2017 서울 국제 안무 페스티벌'에

서 해외 심사위원장을 수상하며 이번 수상으로 전북대 무용학과

는 내년 '뉴욕 92Y 하크네스 댄스센터'의 초청을 받아 세계 최고의 무대인 미국에서 작품을 올릴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전북대 무용학과 작품 '뾰족한 지렁이의 발톱'을 본 해외심사위원 캐서린 타린 하크네스 댄스센터 큐레이터는 "해외심사위원 캐서린 타

린 하크네스 댄스센터 큐레이터는 "감성을 자극하는 안무로 다른 작품과의 차별화가 탁월했다"고 평가했다.

전북대 무용학과를 이끈 최 박사는 "꿈 이전의 본능과 정서를 고스란히 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무용수가 발산하는 에너지의 순간성을 소중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안무를 한게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고 자랑했다.

/김민근 기자

국립순창자연휴양림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